



한국 아태연맹 탈퇴 일본·호주·뉴질랜드 동참…창설 이래 최대 위기 치협 정기이사회서 탈퇴 결정 최종 승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이 APDF(아시아·태평양 치과 의사연맹)를 탈퇴했다. 치협은 3월 28일 오후 정기이사회를 열고 APDF 탈퇴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일본 치협도 3월 21일 APDF 탈퇴를 일본이사회에서 공식 선언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도 탈퇴서를 APDF 사무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PDF 분담금 규모가 70%에 이르는 이들 4개국이 탈퇴함에 따라 앞으로 APDF는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4개국의 APDF 탈퇴는 지난 2월 27일 폐막한 파키스탄 총회에서 한국 등 4개국이 요구한 정관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당시 4개국이 제출한 정관개정안은 APDF의 실질적 권한자인 사무총장의 연임 규정을 폐지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허술하게 명시된 현 정관의 각종 규정을 FDI(세계치과의사연맹)정관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었다.

특히 4개국이 APDF를 탈퇴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현 사무총장인 올리버 헤네디기 사무총장의 전횡 때문이라는 중론이다.

APDF 재정과 행정을 관할하는 실질적인 권한자인 헤네디기 사무총장은 지난 30여 년간 사무총장직을 장기 집권하면서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의 회무 운영 등으로 국제화에 걸맞는 회무 집행을 촉구하는 4개국과 마찰을 빚어 왔다.

이날 치협 이사회에서 문준식 국제이사는 “헤네디기 사무총장이 30년 가까이 장기 집권하다보니 여러 폐단이 나왔다”면서 “이번 4개국의 탈퇴 결정은 APDF 민주화를 위해 1년 전부터 최악의 경우를 가정, 4개국의 의견조율을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는 “앞으로 APDF 4개국은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4개국의 뜻을 이해한 FDI 미셸 아덴 회장 등 집행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정 인사가 사무총장직을 장기집권 하는 것을 막고 APDF의 민주화를 이루려는 움직임은 지난 이기택 집행부부터 추진해온 사실상의 치협 국제 회무의 핵심 과제였다.

지난 2002년 APDC 서울총회에서는 한국주도의 12개국의 반대로 헤네디기 사무총장이 총장선거에서 낙선, APDF 민주화 바람이 부는 듯 했다. 그러나 2005년 말레이시아 총회에서 그가 사무총장직에 재 입성하자 4개국은 정관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의 폐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의견일치, 정관개정안을 강력 추진해 왔다.

현재 25개국으로 구성된 APDF에 한국은 지난 58년 3월 처음 가입했으며, 67년 제5차 총회, 89년 제14차 총회, 2002년 제24차 총회 등 모두 3번의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APDF 발전에 기여해 왔다.

치아의 날 행사 구체화 건치 노인 선발 등 세부내용 집중 논의 구강보건홍보협의회 회의

오는 6월 9일 열릴 예정인 '치아의 날 기념식 및 건강치아노인선발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치협은 비롯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등 치과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구강보건홍보협의회(위원장 이수구·이하 협의회)는 지난 4월 17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앰버서더 호텔에서 행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부별 건치 노인 선발 진행 사항을 비롯해 내외빈 초청 명단 리스트 작성, 연예인 초청,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구강 보건 동영상 제작 등이 집중 논의됐다.

각 지부별 건치 노인 선발 진행 사항은 추후 예정돼 있는 지부장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행사에 초청된 내외빈 명단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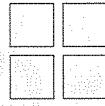
아울러 행사 당일 송대관, 태진아 등 정상급 연예인을 초청하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전 행사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행사 당일 구강 보건 관련 동영상을 제작, 초청된 노인들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행사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보건소를 비롯한 주요 의료기관에 배포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구강보건홍보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알리기 위해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5월 중에 갖기로 했으며, 세부 필요한 논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메일을 통해 논의키로 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이 밖에 협의회는 회의 시작 전 최근 급서한 고 김재홍 구강보건팀 팀장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의 시간도 가졌다.

이수구 부회장은 “어려운 외종에 매번 시간을 내 참석해 주는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속에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율징계권 위임 적극 건의” 치협 집행부, 복지 장관 면담…현안문제 전달

치협 집행부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취임 후 처음 가진 공식 면담에서 자율징계권 위임과 치과의사 인력 감축, 치과건강분야 급여 확대시 스케일링 급여화 우선 등을 적극 건의했다.

안성모 협회장과 이수구·김동기·김재영 부회장, 전민웅 치무이사는 지난 4월 12일 유시민 장관과의 면담에서 치과의료계의 주요 현안 문제를 설명하고 개선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성모 협회장은 “치협과 의협, 한의협이 공동으로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위임하는 의원입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복지부가 행정권한의 일부를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이양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협회장은 “자율징계권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 정부와 의료인,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수교육도 내실있게 개선토록 하는 등 의료인단체가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강조했다.

안 협회장은 또 “치과의료보협에 있어 스케일링 급여화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틀니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보건소를 통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무료틀니사업을 보다 확대시키면 치과의사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뒤 무료틀니 비용도 현실화 시켜 줄 것

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안 협회장은 “2년전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과대학 정원 10% 감축도 합의된 상태”라며 “현재 의과대학 정원만 10% 감축된 상황이므로 치과대학 정원 감축도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유시민 장관은 자신의 치과치료경험 등을 소개하면서 “치과분야 상대가치 수가가 저평가 돼 있는 것 같다”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만큼 면밀히 검토해 저평가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치협 집행부는 이날 유 장관에게 ▲간호조무사 방사선촬영 등 진료업무 범위 조정 ▲치과분야 상대가치 수가 적정반영을 통한 치과의료정상화 ▲치과의사 보수교육 관리 철저 등 7개 현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안 협회장은 유 장관 면담이 있은 뒤 “유 장관이 자율징계권 위임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며 “특히, 유 장관이 치과의료분야 상대가치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등 치과분야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집행부는 유 장관의 면담이 있은 뒤 이종구 보건정책관과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과도 만나 치과계 현안을 설명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치의 10명중 8명 도입 찬성” “수련기간 1년~2년 사이 적당” 신호성 기획이사 ‘일반의 수련제도 도입’ 공청회서 주장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제도(GPD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치협 GPD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이수구)는 지난 4월 13일 GPD 연구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치과의사일반의 수련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치과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신호성 치협 기획이사의 ‘졸업 후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 및 1차 의료의 질 개선’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5명의 토론자들이 나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호성 기획이사는 주제발표서 치과의사 수련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 특징, 외국 일반의 과정 소개와 임상수련 특징과 최근 치협 GPD제도연구위원회가 전국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등이 발표됐다. 신 이사는 “오래전부터 치과의사 일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치과계에 널리 자리 잡고 있었던”면서 “치과의사 일반의 제도 도입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차 진료의 질 향상, 수련 지망자들의 다양한 진로를 제공 할 수 있는 등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는 또 치과의사 일반의 제도 시행의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로 “수련 기간은 1년에서 2년 사이가 적당하고, 수련 시행 주체는 치

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과 전문의 수련은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내용은 심화학습과 직업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수련 지원자와 수련 기간 사이에 매칭 프로그램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이날 주제 발표에서 신 이사는 설문조사 발표를 통해 “치과의사 10명 중 8명이 넘는 이들이 일반 수련의 도입에 찬성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0면 참조).

이어 진행된 토론 시간에는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제도와 유사한 통합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는 연세치대의 김기덕 교수(연세치대 통합 진료과)의 발표를 비롯해 김동원 원장(푸른치과의원), 박영국 치협 수련 고시이사, 송현철 교수(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이영규 교수(서울 아산병원, 대한치과병원협회)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참석한 안성모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대 졸업 후 전문의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양질의 치과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자리로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제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